

## 국토교통부, AI 기반 「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」 마련

| 해당국가 | 한국 | 기관(기업) | 국토교통부 | 동향분야 | 정책 | 국토교통<br>기술분류 | 도로교통 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|

### □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「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」을 마련

- 로드맵은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 확산과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과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
  -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고도화해 자율주행·UAM·도시공간 등 5개 분야의 혁신 전략을 반영
  - 자율주행과 UAM의 상용화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추진 방향을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
-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2027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 추진
  -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대규모 실증을 진행하고, 실제 주행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데이터 기반 마련
  - 규제는 우선 허용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·대여·중개 등 신규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

### □ 로드맵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(UAM), 도시공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실증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

- 도심항공교통(UAM)은 2028년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용화를 시작하고,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상용 서비스를 확대해 단계적인 시장 확산을 추진
  - 정부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험 구역으로 정해 물류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장거리 화물 운송 실증도 본격 추진
  -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혼재된 환경에서 안전한 교통 운영을 위한 주행정보 수집·분석 체계를 구축하고, 실시간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
- 도시공간 분야는 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AI 기반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과 확산 기반을 마련
  -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등 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고, 로봇·이동 수단이 다니기 좋은 건물을 위한 새 법 제정도 추진
  - 2025년 12월 공개 포럼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드맵을 최종 확정

※ 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6.03.17),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...AI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가동